

서인 송시열과 치열하게 맞선 남인의 거두, 윤선도

노성태 원장의 남도인물열전

<69> 고산 윤선도



윤선도 영정

해남 윤씨가의 종통을 잇다

시조 '오우가'와 '어부사시'가 유명한 고산 윤선도는 정철, 박인로와 함께 조선시대 대표 시인이다. 그러나 윤선도는 자연을 읊미한 시인이기 이전에 서인 송시열과 치열하게 권력 다툼을 벌인 남인의 거두였다. 그리고 늘 권력 투쟁에서 졌고, 세 번에 걸친 유배는 그 결과물이었다.

시조 시인이면서 정치가였던 윤선도는 정조가 '홍재전서'에 '제2의 무학(無學)'이라 칭할 정도로 풍수에도 능한 인물이었고, 민간요법에 관련된 '약화제(藥和劑)'라는 의서를 남긴 한의사이기도 했고, 부용정과 금쇄동 등을 조성한 조경사이기도 했다. 팔방미인인 셈이다. 특히, 한의학에 대한 실력이 대단했다. 인조, 효종, 현종 때 윤선도는 증공전과 대비전의 의학(醫藥)을 위해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적이었던 송시열마저 아들을 보내 그에게 약을 지어줄 것을 청할 정도였다.

송시열의 정치적 라이벌 윤선도(尹善道, 1587~1671), 그는 1587년(선조 20) 한성부 동부 연화방 삼각산 근처(현 종로구 연지동)에서 예빈시 직장 윤유심과 순흥 안씨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다. 8살 때인 1594년(선조 27), 아들이 없던 큰아버지 윤유기의 양자가 돼 해남 윤씨의 종손이 된다. 강원도 관찰사를 지낸 윤유기는 어초은 윤효정의 4대 종손이었지만 아들이 없었다. 서울 출생의 윤선도가 해남과 보길도 등 남도와 인연을 맺은 연유다.

윤선도의 본관은 해남, 자는 약이(約而), 호는 고산(孤山) 또는 해옹(海翁)이며, 시호는 충헌(忠憲)이다.

호 '고산'은 그가 태어난 서울이나, 어린



녹우당(해남군 해남읍)

시절을 보낸 해남과는 관련이 없는 남양주시 수석동(한강 체육공원)에 위치한 산 이름 '고산(孤山)'을 호를 삼는다.

윤선도는 1652년(효종 3) 예조참의 시절 서인의 모략을 받아, '시무 8조'를 올린 후 사직하고 양주의 고산촌에 별서를 짓고 은거한다.

한강이 홍수가 나면 주변이 물에 잠겼지만, 그의 은거지에 있던 고산만은 외로이 물 위에 솟아 있었다고 한다. 윤선도는 정치적으로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이 산을 '고산'이라 이름 붙이고, 호를 삼았던 것이다.

윤선도 집안은 사림이 동·서로 나뉠 때 동인이 됐고, 정여립 모반사건으로 동인이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뉠 때 남인이 된다. 윤선도는 일찍부터 서인에게 원한을 품는다. 정여립 모반사건 때 위관 정철이 서인이었는데, 이때 죽임을 당한 이발이 조부 윤의중의 사위였다.

1628년(인조 6) 윤선도가 별시 문과와 초시에 장원급제하면서 우의정 장유의 특별 추천을 받아 봉림·인평대군의 사부가 된다. 이때 인조의 신임을 받은 윤선도는 호조와 랑과 세자시강원 문학을 역임한다. 이 세자시강원에서 역시 대군의 사부로 보임된 젊은 송시열을 만나게 되는데, 후일 둘은 정적이 된다.

유배지에서 20여년을 보내다

젊은 시절 20여 년의 유배는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다. 20여 년을 유배지에서 보낸 인물로는 해남 출신의 유희춘도, 진도에서 유배 생활을 한 노수신도 있지만, 고산 윤선도도 그중 한 분이다.

성균관 유생 시절인 1616년(광해군 8), 윤선도는 이이첨 등이 왕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권세를 휘두르자 "폐행신(廢幸臣) 이이첨이 국정을 제멋대로 하며, 의정(議政) 박승종과 왕후의 오빠 유희분이 임금에 잇고 나

라를 저버렸다"는 내용 등을 담은 상소, 즉 '병진소(丙辰疏)'를 올린다. 하지만 사간원 등 삼사는 오히려 윤선도를 탄핵했고, 이듬해 함경북도 경원으로 유배된다.

그는 유배지에 서당을 짓고 벽촌의 젊은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쳤는데, 여진족과 내통했다는 죄를 뒤집어 쓰고 경남 기장군으로 유배지가 바뀐다. 1619년(광해군 11) 5월, 양아버지 윤유기의 상을 당해 특별히 풀려나 3년 상을 마친 뒤 다시 유배지로 되돌아갔고, 1623년 인조반정으로 유배가 풀린다. 이것이 첫 유배였다.

두 번째는 다소 어이없는 유배였다. 1636년(인조 14) 12월, 병자호란으로 왕이 강화도로 피난을 떠났지만, 길이 막히자 남한산성으로 들어간다. 윤선도는 이듬해 1월, 식구들과 부리던 종 수백 명을 이끌고 임금을 지키기 위해 출병한다. 출병 중 강화도가 함락되고 남한산성에 갇힌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 화의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뱃머리를 제주도로 돌린다. 청에게 굴복을 참지 못한 그는 평생 은거를 결심한 것이다. 그래서 뱃길을 돌려 제주도로 향하던 중 잠시 들른 보길도의 자연환경에 감동, 정착하게 된다.

서인 언관들의 탄핵 내용이 '인조실록' 인조 16년 3월 1일자에 나온다. "대동 칠방 윤선도는 일찍이 병란 때에 해로를 따라 강화도 근처까지 이르렀는데, 경성을 지적에 두고서도 끝내 달려와 문안하지 않았으며, 피난 중이던 처녀를 잡아 배에 싣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이 남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섬으로 깊이 들어가 종적을 숨기려고 했으니, 잡이다 국문해 정죄하소서"였다. 피난 중이던 처녀를 잡아 배에 싣고 갔다는 것은 또 하나의 핑계였고, 핵심은 경성을 지적에 두고 왕에게 문안드리지 않고 뱃머리를 다시 돌렸다는 것이었다.

서인들에 의해 패썹죄에 걸린 그는 1638년(인조 16) 6월, 두



'오우가'가 새겨진 윤선도 시비(평주 사직공원)

번째 유배길에 오른다. 이때 유배지는 경상북도 영덕이었다.

세 번째 유배는 예송논쟁과 관련해서였다. 조선시대 예송에 관한 논쟁은 두 차례 진행된다. 효종이 사망했을 때와 효종의 비가 사망했을 때, 살아있던 효종의 계모 자의대비가 얼마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하는냐를 두고 서인의 거두 송시열과 남인의 거두 허목·윤선도 등이 벌인 논쟁이었다.

효종의 친모인 인열왕후가 사망한 후 새로 들인 중전이 효종의 계모가 되는 장렬왕후(자의대비)였다. 자의대비는 14살에 인조와 혼인했기 때문에 아들인 효종과 며느리인 효종비 인선왕후보다도 5살이 어려웠다. 효종과 효종비가 사망했을 때 자의대비가 살아있었던 이이다.

둘째 아들로 왕위를 계승한 효종이 죽자, 송시열 등 서인들은 계모인 자의대비는 "적장자 이외에는 모두 서자로 본다"는 '주자가례'에 따라 1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년설(享年說)이었다. 이에 맞서 윤선도와 허목 등은 비록 차남이지만 왕위를 계승했으므로, 장남처럼 3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송시열이 효종을 가짜 임금으로 취급한다면, 송시열을 처형해야 한다는 격렬한 상소까지 올린다. 이에 서인들은 윤선도가 어진 이를 모함한다고 해 사형시켜야 한다고 역공했다. 윤선도의 상소는 현종을 고무하기 보다는 분노케 했다. 가짜 세자, 가짜 임금 운운은 비록 윤선도가 효종, 현종을 옹호하는 뜻으로 말했다 해도, 신하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심한 말이었다.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 또한 서인이었다.

이에 현종은 "윤선도는 심술이 바르지 못해 감히 음험한 상소로 상하를 헐뜯었으니 마땅히 사형시킬 것이로되, 차마 죄주지 못할 사정이 있으니 관작을 삭탈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명을 내린다.

서인 송시열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차마 죄주지 못할 사정'이란 효종과, 현종의 사부였음을 뜻한다. 효종, 현종의 사부가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인은 윤선도를 귀향시킨 데 그친 현종의 처분이 너무 미약하다 해 연일 상소를 올린다. 그래서 내려진 것이 "윤선도를 삼수(三水)에 귀양보내라"라는 하교였다. 세 번째 유배였다. 그의 유배가 풀린 것은 효종비가 죽은 후에 전개된 2차 예송에서 남인들이 승리한 1657년(현종 8)이었다. 당시 윤선도의 나이 81세였다.

보길도에 부용정을 조성하다

윤선도 하면 떠올리는 곳은 해남 녹우당과 완도 보길도 부용정 원림이다. 녹우당은 서울에서 태어난 윤선도가 8살 때 큰아버지 윤유기에게 입양돼 생활했던 윤선도의 고택이자, 해남 윤씨 종택이다. 녹우당 영역에는 사랑채와 안채, 행랑채, 어초은 사당, 고산 사당, 추원당 등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랑채는 효종(봉림대군)이 세자 시절 자신의 스승 윤선도를 위해 경기도 수원에 지어준 것을 1638년(현종 9), 고산의 나이 82세 되던 해에 배편으로 옮겨와 그대로 지은 것이었다.

보길도는 병자호란 때 인조가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주도에 은거하려다 자연경관에 반해 1637년(인조 15) 이후 세연정, 낙서재, 동천석실을 짓고 말년을 보낸 곳이다. 윤선도는 "낙서재에서 아침이면 닭 우는 소리에 일어나서 후학을 가르치고 수레를 타고 악곡을 거느리며 세연정이나 동천석실에 가서 자연을 벗 삼아 즐겼다"고 한다. 윤선도는 51세부터 85세에 작고할 때까지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13년 동안 보길도에 머무른다.

윤선도 최고의 라이벌은 서인의 거두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었다. 송시열이 1607년생이고, 윤선도는 1587년생이니, 윤선도가 20년 선배였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제1차 예송논쟁 당시 고산 윤선도와 우암 송시열의 논쟁은 격렬했다. 1차 예송은 서인이 승리했고, 패배했던 윤선도는 함경도 삼수로 유배 보내진다.

그런데 윤선도가 은거하며 생의 마지막을 즐겼던 보길도에 윤선도에게 오랜 기간 시련을 안겨줬던 송시열의 흔적도 남아 있다. 윤선도가 세상을 떠난 18년 후인 1689년(숙종 15), 송시열이 후궁 장씨의 희빈 책봉과 장씨와의 사이에 태어난 윤(詢)을 원자로 책봉하는 것에 반대한다. 숙종의 노여움을 산 송시열이 제주도로 유배 가던 도중 풍랑으로 기착한 곳이 바로 보길도였다.

송시열은 보길도 끝(전남 완도군 금당면 가학리) 암벽에 자신의 죽음을 예견이라도 하듯 왕을 그리워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시를 새긴다. "어든 옛 늙은 몸이 푸른 바다 한가운데 떠 있구나"로 시작되는 '송시열 암각시문'이 그것이다. 그때 송시열의 나이 83세 때였다. 송시열은 그때(1689) 국문을 받기 위해 제주도에서 상경하던 6월 3일, 정음에서 급부도사가 건넨 사약을 받고 최후를 맞이한다.

보길도에서 85세까지 풍류를 즐기던 고산 윤선도, 83세의 나이로 보길도에 들러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다 사약을 받고 죽음을 맞이한 우암 송시열, 남인과 서인의 영수로 치열하게 대결했던 두 거물의 마지막 삶의 반전에 역사의 아이러니가 느껴진다.

<노성태·남도역사연구원장>

이 기사는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세연정 전경(완도군 보길면)



윤선도 종가 문적(고산 윤선도 박물관 소장)